제46기 독서모임 설명회

독서모임 시간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 12:00	1팀(온라인)	5팀	9팀		17팀
14:00- 16:00			10팀	14팀(온라인)	18팀
16:00- 18:00				15팀	

독서모임 개요

- 오프라인 팀

- 대면 모임 장소: 법학전문대학원(N2)-715호

- 진행 시간: 2시간

* 비상시 온라인 전환(Zoom)

독서모임 개요

- 온라인 팀

- 화상회의 앱 Zoom 이용

- 진행 시간: 1시간 30분

진행 기간

- 12월 20일 ~ 12월 23일 - 설명회 및 팀별 도서 배부
- 12월 26일 ~ 2023년 1월 27일 - 모임 1 ~ 5주차
- 2023년 1월 30일 ~ 2월 3일 - 보충 주차
- 종합토론회 추후 공지

운영 방식

1. 도서 읽기

2. 발제문 작성 및 제출

3. 발제문 취합(운영자)

4. 독서 모임 활동(매주, 모임 당일)

발제문 예시

도 서 명	지은이, 『도서명』, 옮긴이, 출판사, 출판연도. 예시) 셸리 케이건,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엘도라도, 2012.				
제 출 자	학과		학번		성명	
내 용	1. 전체적인 감상(600자±60자) 예시) I 죽음에 관해 생각해보게 함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다소 역설적인 책이었던 것 같다.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 그것은 대중들에게는 두렵고, 막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신의 삶의 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외부의 주체에게 그 약점을 이용당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죽음을 직시하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태인들은 일찍부터 자녀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간다고 한다. 삶의 끝이 있음을 어렸을 적부터 교육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끝내야 하는 일이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도 끝이 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데,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강물이 흐르듯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쁜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자와 의견을 같이한다. 나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다. 삶이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죽은 후에는 이러한 기쁨을 더 누릴 수 없을 테니까. 다만, 언젠가 내가 약 75세가 지난 다음에는 어떠한 즐거움이 남아있을지 궁금하다. 그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즐거움이 다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예과 생활이 즐겁다. 본과 생활도 즐거울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극심한 스트레스도 서퍼가 거친 파도를 맞이하듯 즐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더 이상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종교에 그 후의 내 삶을 양도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3. 토론 주제 혹은 질문(2가지 이상)

예시)

1.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입장은 물리주의와 이분법 외에는 없는가?

2. 자살을 생명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려면 생명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보아야 하는데, 생명은 '주어진 것'이므로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2. 인상적인 구절(2군데 이상), 그 이유(200자 이상)

예시)

[인용 구절] p.434

"즉, 일상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들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세 번째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생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느 정도 중대한 성취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자신이 뭔가를 얻었다는 확실한 성취감을 위해 일상적인 목표들도 적절한 비율로 추구해야 한다."

[인용 이유]

금욕주의 적인 삶과 쾌락주의적인 삶 가운데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문장이라 생각해서 인용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삶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것이다.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으므로 그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확률이 낮지만 가치가 높은 목표들도 세우고, 성취할 수 있지만 가치는 좀 낮은 즐거움들도 누려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용 구절] p. 333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이유를 '삶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박탈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모든 설명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죽고 나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서다. 살아있을 때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하나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다. 이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용 이유]

죽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죽음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저자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를 주게 되는 점에서 이 책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끝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에 대해 알면 지금 삶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우수 활동자 혜택

- 개근상
  - 5회 모임 참석(설명회 제외)

- 우수 활동상
  - 독서인증제 4회 이상 제출(독서모임 도서 대상)

- 종합토론 발표상 - 추후 공지

* 휴학생(초과 학기, 졸업유예 포함)은 상품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

도서 배부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N2)-810호
- 평일 9:00 ~ 18:00(점심시간 제외)

질의 응답

Thank you

문의사항

043-261-3936